

독후 활동지

김진원 글·불곰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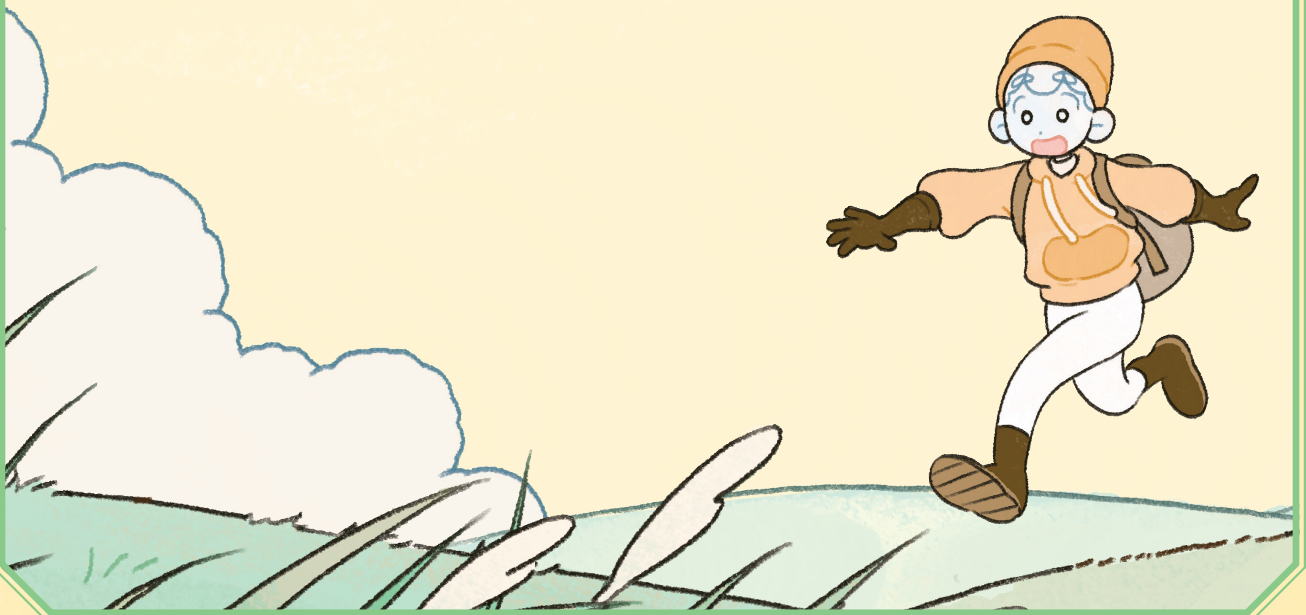
1 ○○○○의 심각함 ... 3

2 수지의 특징 ... 4

3 당산나무 축젯날과 가면극 ... 5

4 올랑 호수가 변한 까닭 ... 6

5 우리가 해야 할 일 ... 7



1. ○○○○의 심각함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상한 알갱이 하나가 몸속으로 쑥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늘 무언가가 몸속으로 스며들었으니까. 흙먼지가 그랬고 꽃가루가 그랬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몸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런데 이 알갱이는 그러지 않았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 조금씩 늘었다. 크기도 제각각이었다.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제법 큰 것도 있었지만 한참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정말 작은 것도 있었다. (7쪽)

Q1

『호모 플라스티쿠스』는 ○○○○ 쓰레기의 심각함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널리 퍼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Q2

○○○○ 쓰레기의 나쁜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아는 대로 써 보세요.



2. 수지의 특징

체육 시간에 이번 출석 수업 동안 어떤 운동을 배울지 정했다. 축구와 소프트볼을 놓고 의견이 팽팽했다. 축구로 정해지면 수지는 구경꾼 신세가 되고, 소프트볼로 정해지면 포수를 할 수 있었다. 포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칭칭 싸매다시피 갖춰 입으니까. 막판에서야 겨우 소프트볼로 기울어졌다. (11쪽)

Q1

수지는 유전적 변이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어떤 특징 때문에 축구를 할 수 없나요?

Q2

수지가 평소 하고 다니는 모습을 어떤가요? 맑은 날과 흐린 날의 모습을 각각 써 주세요.

① 맑은 날:

② 흐린 날:



3. 당산나무 축젯날과 가면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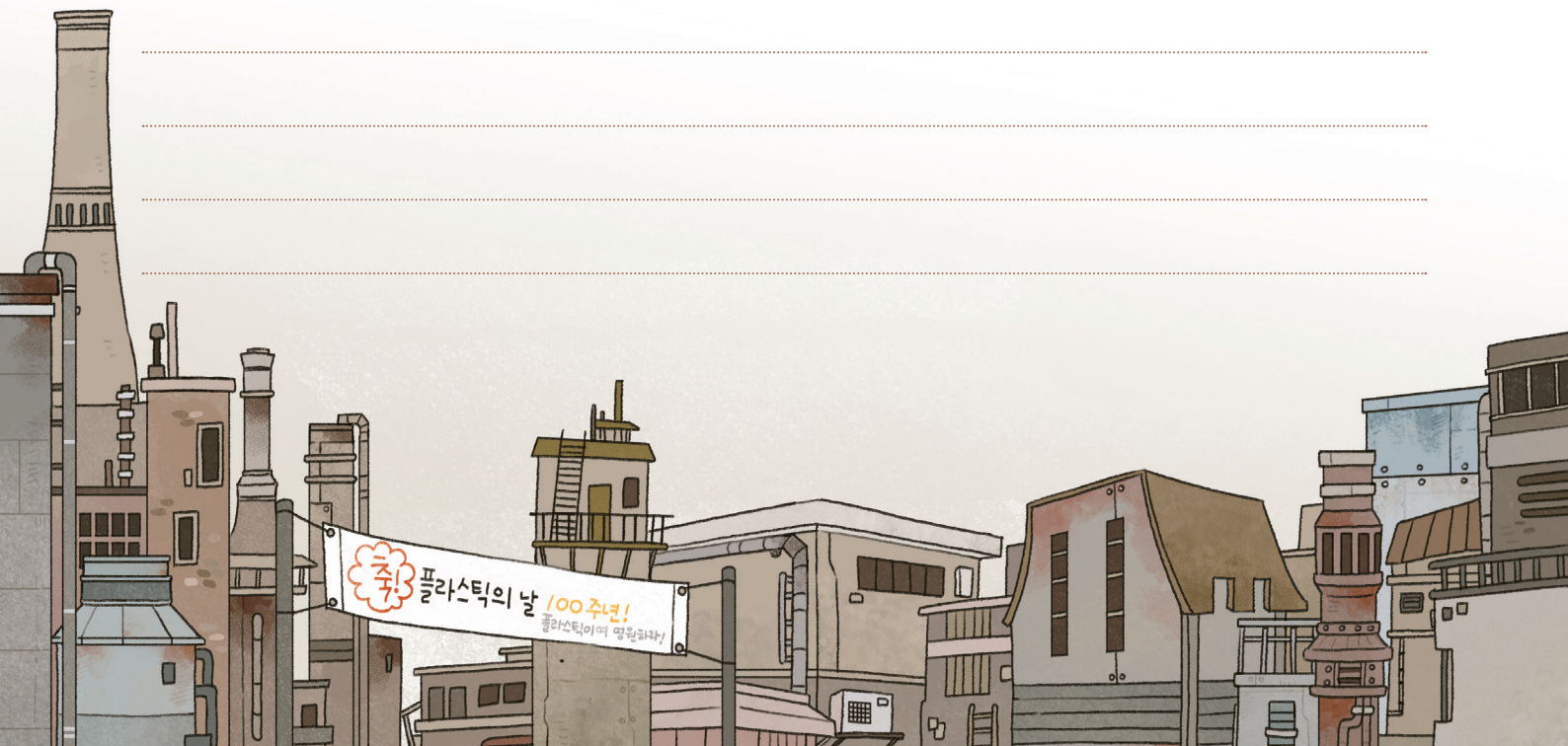
“버클랜드공장 마을 놈들, 도대체 무슨 심보가 그렇게 고약하담. 하필 우리 나무새 마을 당산나무 축젯날로 ‘플라스틱의 날’을 옮기다니. 분명 일부러 그런 걸 테지. 그나저나 이젠 때마다 북새통을 치겠군.”
(19쪽)

Q1

버클랜드공장 마을에서 마을 기념일을 나무새 마을의 당산나무 축젯날과 같은 날짜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Q2

당산나무 축젯날 열리는 어린이 가면극은 <미다스의 후예>에서 미다스 8세는 디오니소스를 통해 어떤 능력을 얻게 되나요?



4. 올랑 호수가 변한 까닭

올랑 호수는 수지와 인연이 깊었다. 엄마한테 버려진 곳이기도 하지만 나무새 할머니를 만난 곳이기도 했다. 올랑 호수에서 헤엄을 치면 아득한 뿌리에 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시리면서도 따스했다. 그런 수지도 언젠가부터 올랑 호수에 가지 않았다. 봉사 활동을 할 때 가서 겨우 청소만 하고 왔다. 바다와 가장 가까워서 그런지 고니섬에 있는 다른 호수에 비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독 많았다. (53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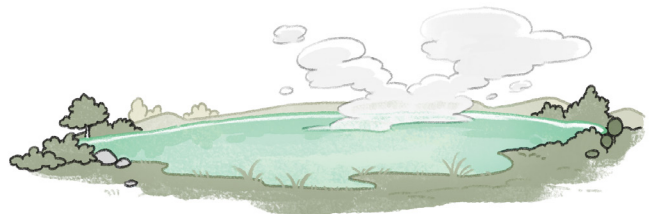
언젠가부터 올랑 호수에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생겼다. 식물 플랑크톤은 끈적끈적한 물질을 분비했는데 꼭 콧물 같았다. (58쪽)

Q1

수지가 발견된 올랑 호수는 예전과 달리 현재 좋지 않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명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Q2

수지가 오염도 조사를 위해 올랑 호수에 표본 채취를 하러 들어갑니다. 올랑 호수가 오염된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5. 우리가 해야 할 일

수지가 나무새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나무새 할머니가 그 눈길을 따스하게 안으며 말을 이었다.
“함께 살아간다는 거야. 사람도 나무도, 새도 다람쥐도, 바람도 바다도, 지구도 우주도 다 함께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거지. 플라스틱조차도 말이다. 세상은 하나고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우린 거대한 사슬을 이루는 한 고리란다. 고리가 하나라도 없으면 사슬이 되지 않아.” (155쪽)

Q1

수지와 나무새 할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하여 써 보세요.

Q2

우리는 세상을 이루는 거대한 사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세상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건지 써 보세요.

